

News

2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창구, 은행으로 통일... 금리는 배 이상 오를듯

조선비즈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금리수준도 지금의 1.5%보다 높은 연 3~5%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대출 창구는 시중은행으로 통일...더 많은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도록 보증 지원을 통해 부실차주에 대한 위험을 정부가 나눠지기로

코로나 쇼크, 금고 밖은 위험해 두달만에 50조원 쌓였다

머니투데이

지난 2월 말 기준 부동산자금 규모는 1,098조3,069억원으로 집계...지난해 말(1045조5,064억원) 이후 두 달 새 50조원 넘게 부동산자금이 늘어...은행 관계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당장 유동성을 걱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충격 1분기 외환거래액, 2008년 이래 최대

연합뉴스

'1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합) 규모는 593억7천만달러로 전분기보다 49억9천만달러(9.2%) 늘어... 2008년 이래 가장 큰 규모...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내다팔아 자금을 회수해 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

금융권까지 덮친 '코로나 태풍'...KB금융 순익 전년 대비 13% 감소

매일경제

KB금융에 따르면 올 1분기 순이익이 7,29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7%(1,162억원) 감소...이자수익 등 본업에서는 선방했으나 외화채권손실 등 대규모 기타영업손실이 발생해 올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

'보험주'의 부활...반등세 지속될까

아시아투데이

한 때 동전주로 전락했던 한화생명 · 손보도 2배 넘게 급등...대장주 삼성생명 · 화재도 상승세...車 손해를 개선 등 긍정적 요인...일각선 "일시적 반등" 시각도 글로벌 증시가 오름세인 데다가, 푸르덴셜생명 · KDB생명 등 잇따른 보험사 매각 소식이 오르내리면서 보험주에 대한 재평가

서민경제는 생활고...적금 보험 깨고 빚만 쌓인다

머니투데이

생명보험 3개사와 손해보험 5개사의 지난달 보험 해지 환급금은 3조162억원...전월보다 6,681억원(28.4%), 전년동기대비 6,867억원(29.4%) 증가 코로나19 충격파는 '현금 양극화'의 정도를 키워...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돈줄이 마른 이들에게 '곳간 채우기'는 남 얘기

'라임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회장·이종필 부사장 검거

연합뉴스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혀... 라임 측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된 과정과 비호세력의 존재 여부 등 이 사태의 전말이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날지 주목

'반대매매 자제' 한달...증시 반등에 원상복귀 조짐

뉴스1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자제 권고로 시행된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유예, 신용융자 담보비율 하향 등의 조치가 점차 원상복귀 조짐 국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여...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규모도 다시 점차 늘어나는 모습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